

2015.10.17 지방직 7급[국어] 문항 및 해설 -B책형

- 전) 비타에듀 언어영역
- 전) 이투스 청솔학원 언어영역
- 전) 메가스터디 언어영역
- 현) KG패스원 국어



저서) 2013 EBS 검토  
2012 자이스토리  
디딤돌 국어의 모든 것 시리즈  
디딤돌 EBS의 모든 것 시리즈  
메가박스 EBS 분석노트 비문학  
네오뱅크 완소국 국어능력인증  
네오뱅크 구슬담 국어능력인증

문 1. 밑줄 친 부분 중 음운의 탈락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 지난해 새로 집을 지었다.
- ② 잘 우는 남자는 매력이 없다.
- ③ 그는 사과문을 써서 벽에 붙였다.
- ④ 국이 뜨겁고 매워서 먹지 못하겠다.

④ 맵- + 어 → 매워 (ㅂ 불규칙 활용에 의해 ㅂ이 ㅅ/ㅌ로 변하여 뒤의 어미와 축약)
[오답해설]
① 짓- + -었- + -다 → 지었다 (ㅅ 불규칙 활용에 의한 ㅅ탈락)
② 울- + -는 → 우는 (ㄹ 규칙 활용에 의한 ㄹ탈락)
③ 쓰- + -어서 → 써서 (ㄷ 규칙 활용에 의한 ㅌ탈락)

문 2. 다음 중 문장을 잘못 고친 것은?

- 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 실내에서 담배를 피지 맙시다.
- ② 사용 후 반듯이 물을 내려 주십시오. → 사용 후 반드시 물을 내려 주십시오.
- ③ 화장실을 깨끗히 사용합시다. →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 ④ 지나친 흡연을 삼가합시다. →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① ‘피우다’의 의미로 ‘피다’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피우다’만 표준어로 삼는다. ‘피다’는 자동사로 목적어가 필요 없으므로 목적어(담배)를 쓰는 경우에는 ‘피우다’를 써야 한다.
[오답해설]
② ‘반듯하다[正, 直]’의 ‘반듯-’에 ‘-이’가 붙은 ‘반듯이(반듯하게)’와 ‘반드시[必]’는 뜻이 다르다.
③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ㅅ’ 받침 뒤는 ‘-이’로 적는다.
④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 ‘꺼리는 마음으로 양(量)이나 헛수가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하다’ 등의 뜻일 때, ‘삼가다’가 옳다. 흔히 ‘삼가하다’로 쓰는데 잘못된 표현이다.

똑똑한 <다음 나래국어 카페>: <http://cafe.daum.net/naraeyoujin>

문 3.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금고 가득히 눈부신 금괴가 쌓여 있었다.
- ② 바람이 가볍게 부는 날씨에 기분 좋았다.
- ③ 소인은 없이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 ④ 반죽이 되게 묽어 국수 만들기가 힘들다.

② 형용사 ‘가볍다’의 활용형 ‘가볍게’이다. ‘-게’는 부사과생접미사가 아니다.  
 \* -게: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앞의 내용이 뒤에서 가리키는 사태의 목적이 나 결과, 방식, 정도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부사형 전성어미로 보기도 한다)

[오답해설]

- ① 부사 ‘가득히’: 가득(분량이나 수효 따위가 어떤 범위나 한도에 꼭 찬 모양).
- ③ 부사 ‘없이’: 재물이 넉넉하지 못하여 가난하게.
- ④ 부사 ‘되게’: 아주 몹시.

문 4. 훈민정음 28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초성의 기본자는 발음기관을 상형한 ‘ㄱ, ㄴ, ㄷ, ㄱ, ㅇ’이다.
- ② 초성 17자에는 전탁자 ‘ㄱ, ㄷ, ㅁ, ㅂ, ㅅ, ㅈ’도 포함된다.
- ③ 중성의 기본자는 ‘天, 地, 人’을 상형한 ‘·, 一, |’이다.
- ④ 중성 11자에는 재출자 ‘ㅊ, ㅋ, ㆁ, ㆁ’도 포함된다.

② 초성 17자에는 전탁음(된소리)이 들어가지 않는다. 전탁음을 포함하면 23자였다.

구분	아	설	순	치	후	반설	반치
전칭	君 ㄱ	斗 ㄷ	嶮 ㅁ	卽 ㅂ	把 ㅅ		
차칭	快 ㅋ	呑 ㆁ	漂 ㆁ	侵 ㆁ	虛 ㆁ		
불칭불탁	業 ㅇ	那 ㄴ	彌 ㄹ		欲 ㅇ	閻 ㅁ	穰 ㅂ
전칭				戌 ㅅ			

문 5.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이 집 한 채나마 깎살릴 테냐?  
 - 깎살리다: 재물이나 기회 따위를 흐지부지 다 없애다.
- ② 무릎을 꿇고 한참 입을 달막거렸다.  
 - 달막거리다: 말할 듯이 입술이 자꾸 가볍게 열렸다 닫혔다 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 ③ 너 자꾸 자부락거리지 말고 할 일이나 해라.  
 - 자부락거리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실없이 자꾸 건드려 귀찮게 하다.
- ④ 데생긴 감자들이 한곳에 모여 있었다.  
 - 데생기다: 생김새나 됨됨이가 번듯하고 실하다.

④ 데생기다: [동사] 생김새나 됨됨이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못나게 생기다.
[오답해설]
① 깎살리다: [동사] 1. 찾아온 사람을 따돌려 보낸다. 2. 재물이나 기회 따위를 호지부지 다 없애다.
② 달막거리다: [동사] 1. 가벼운 물체 따위가 자꾸 들렸다 내려앉았다 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2. 어깨나 엉덩이 따위가 자꾸 가볍게 들렸다 놓였다 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3. 마음이 자꾸 조금 설레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③ 자부락거리다: [동사] 가만히 있는 사람을 실없이 자꾸 건드려 귀찮게 하다.

문 6. 다음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화개 장터’의 넷물은 길과 함께 세 갈래로 나 있었다. 한 줄기는 전라도 땅 구례 쪽에서 오고 한 줄기는 경상도 쪽 화개골에서 흘러내려, 여기서 합쳐서, 푸른 산과 검은 고목 그림자를 거꾸로 비추인 채, 호수 같이 조용히 돌아, 경상 전라 양도의 경계를 그어 주며, 다시 남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섬진강 본류였다.</p> <p>하동, 구례, 쌍계사의 세 갈래 길목이라, 오고가는 나그네로 하여, ‘화개 장터’엔 장날이 아니라도 언제나 흥성거리는 날이 많았다. 지리산 들어가는 길이 고래로 허다하지만 쌍계사 세이암의, 화개협 시오 리를 끼고 앉은 ‘화개 장터’의 이름이 높았다. 경상 전라 양도 접경이 한두 군데일 리 없지만 또한 이 ‘화개 장터’를 두고 일렀다. 장날이면 지리산 화전민들의 더덕, 도라지, 두릅, 고사리 등이 화개골에서 내려오고 전라도 황아장수들의 실, 마늘, 면경, 가위, 허리끈, 주머니끈, 족집게, 골백분 등이 또한 구렛길에서 넘어오고, 하동길에서는 섬진강 하류의 해물장수들의 김, 미역, 청각, 명태, 자반조기, 자반고등어 등이 들어오곤 하여, 산협치고는 꽤 은성한 장이 서는 것이기도 했으나, 그러나 ‘화개 장터’의 이름은 장으로 하여서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p> <p>장이 서지 않는 날일지라도 인근 고을 사람들에게 그곳이 그렇게 언제나 그리운 것은, 장터 위에서 화개골로 뻗어 앉은 주막마다 유달리 맑고 시원한 막걸리와 펄펄 살아 뛰는 물고기의 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주막 앞에 늘어선 능수버들가지 사이사이로 사철 흘러나오는 그 한 맑고 멋들어진 춘향가 판소리 육자배기 등이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게다가 가끔 전라도 지방에서 꾸며 나오는 남사당 여사당 협률 창극 신과 광대들이 마지막 연습 겸 첫 공연으로 여기서 으레 재주와 신명을 떨고서야 경상도로 넘어간다는 한갓 관습과 전례가 이 ‘화개 장터’의 이름을 더욱 높이고 그림계 하는 것인지도 몰랐다.</p> <p style="text-align: right;">- 김동리, 「역마」 중에서 -</p>
------------------------------------------------------------------------------------------------------------------------------------------------------------------------------------------------------------------------------------------------------------------------------------------------------------------------------------------------------------------------------------------------------------------------------------------------------------------------------------------------------------------------------------------------------------------------------------------------------------------------------------------------------------------------------------------------------------------------------------------------------------------------------------------------------------------------------------------------------------------------------------------------------------------------------------------------------------------------------------------------------------------------------------------------------

- ① 효정: ‘화개 장터’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군.
- ② 찬호: ‘화개 장터’의 시장적 기능에 이견을 보이고 있군.
- ③ 창수: ‘화개 장터’라는 말의 어원을 잘 설명하고 있군.
- ④ 송희: ‘화개 장터’가 지닌 매력에 대해 잘 알 수 있군.

④ 화개 장터에 흐르는 넷물, 나그네들이 흥성거리는 장터, 장터가 아니더라도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주막과 육자배기는 모두 ‘화개 장터’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해설]
① 통시적 관점으로 ‘화개 장터’의 역사를 서술한 적이 없다.
② ‘화개 장터’의 이름은 장으로 하여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즉, 시장적 기능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③ 왜 ‘화개 장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원은 언급된 적이 없다.

똑똑한 <다음 나라국어 카페>: <http://cafe.daum.net/naraeyoujin>

문 7.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현 공?”  
 “네?”  
 “조선 민족이 대한 독립을 얼마나 갈망했소? 임시 정부 들어서길 얼마나 연연절절히 고대했소?”  
 “잘 압니다.”  
 “그런데 어찌자구 우리 현 공은 공산당으로 가셨소?”  
 “제가 공산당으로 갔다고들 그립니까?”  
 “자자합디다. 현 공이 아모래도 이용당허는 거라구.”  
 “직원님께서도 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 공이 자진해 변했을는진 몰라, 그레두 남헌테 넘어갈 양반 아닌 건 난 알지요.”  
 “감사합니다. 또 변했단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변했느니, 안 변했느니 하리만치 해방 전에 내가 제법 무슨 뚜렷한 태도를 가졌던 것도 아니구요. 원인은 해방 전엔 내 친구가 대부분이 소극적인 처세기들인 때 문입니다. 나는 해방 후에도 의연히 처세만 하고 일하지 않는 텐 반답니다.”  
 “해방 후라고 사람의 도리야 어디 가겠소? 군자는 ( )입넨다.”  
 “전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선 이하(李下)에서라고 비뿔어진 갓[冠]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현 명이기보단 어리석음입니다. 처세주의는 저 하나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 이태준, 「해방 전후」 중에서 -

- ① 不處嫌疑間                                          ② 一魚混全川  
 ③ 溫故而知新                                          ④ 苛政猛於虎

① 김 직원이 ‘현’에게 왜 공산당으로 갔냐고 묻는 태도로 보아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은 자신이 해방 전에는 소극적인 친구들로 인하여 뚜렷한 태도를 가지지 않았지만 해방 후에도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 말에 대한 김 직원의 대답은 해방 전이 나 해방 후나 사람(군자)의 도리는 마찬가지로 같아지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현재 해방 후 처세주의에서 벗어나겠다고 이념적 활동을 하기 시작한 현에게 김 직원이 할 말은 ‘의심받을 곳에 있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 현은 해방 이후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는 처세주의는 이기적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문선(文選)》 〈고악부편(古樂府篇)〉의 ‘군자행(君子行)’에 있는 시구(詩句)이다.  
 군자방미연(君子防未然;군자는 미연에 방지하고)  
 불처혐의간(不處嫌疑間;의심받을 곳에 있지 말고)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외밭에선 신발을 고쳐 신지 않고)  
 이하부정관(李下不正冠;오얏나무 밑에선 갓을 고쳐 매지 않는다.)

[오답해설]  
 ② 一魚混全川(일어혼전천): 한 마리 물고기가 온 시냇물을 흐려 놓음  
 ③ 溫故而知新(온고이지신): 옛 것을 익히어 새것을 앎  
 ④ 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 보다 더 사납다

문 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백운거사(白雲居士)는 선생의 자호이니, 그 이름을 숨기고 그 호를 드러낸 것이다. 그가 이렇게 자호하게 된 취지는 선생의 『백운어록(白雲語錄)』에 자세히 기재되었다.

집에는 자주 식량이 떨어져서 끼니를 잊지 못하였으나 거사는 스스로 유쾌히 지냈다. 성격이 소탈하여 단속할 줄을 모르며, 우주를 좁게 여겼다. 항상 술을 마시고 스스로 흥미하였다. 초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 반갑게 나가서 잔뜩 취해가지고 돌아왔으니, 아마도 옛적 도연명(陶淵明)의 무리이리라. 거문고를 타고 술을 마시며 이렇게 세월을 보냈다. 이것은 그의 기록이다. 거사는 취하면 시를 읊으며 스스로 전(傳)을 짓고 스스로 찬(贊)을 지었다.

- 이규보, 「백운거사전」 중에서 -

- ① 세상을 등지고 살고자 하는 백운거사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세상에 얽매고 싶지 않은 백운거사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백운거사의 불우한 삶에 대해 동경하는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유교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백운거사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부귀공명에서 벗어나 스스로 유쾌히 지내는 것은 세상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다.

[오답해설]

① 초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 반갑게 나아가 취해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은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이니 세상을 등지는 자세는 아니다.

③ 지문에 드러난 백운거사의 삶은 유유자적하고 만족스러운 삶이다. 가난했으나 ‘불우한 삶’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유교적 세계관은 입신양명하여 효제충신하는 것이다. 속세를 떠나 사는 백운거사의 삶은 유교적 세계관을 가진 의지적 삶이 아니다.

문 9. 다음 글에서 비유법이 사용되지 않은 문장은?

㉠말은 생각을 담은 그릇으로 생각이 맑고 고요하면 말도 맑고 고요하게 나온다. ㉡청산유수처럼 거침없이 쏟아 놓는 말에는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다. ㉢우리는 말을 안 해서 후회하는 일보다 말을 쏟아 버렸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더 많다. ㉣때론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말은 두려워해야 할 존재임이 틀림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③ ‘쏟다’라는 표현에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말을 밖으로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있다. 즉, ‘말을 쏟아’는 비유적 표현이 아니다.

[오답해설]

① ‘그릇’이 보조관념, ‘말’이 원관념인 은유법이다.

② ‘청산유수’가 보조관념, ‘말’이 원관념인 직유법이다.

④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두려운 대상으로 ‘말’을 의인화하였다.

문 10.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계층은 일반적으로 학력, 직업, 재산이나 수입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른 사회계층의 분화가 분명히 상정될 수 있을 때 그에 상응하여 언어 분화의 존재도 인정될 터이지만 현대 한국 사회는 이처럼 계층 사이의 경계가 확연한 그런 사회가 아니다. 언어와 연관해서는 그저 특정 직업 또는 해당 지역의 주요 산업에 의거한 구분 정도가 제기될 수 있을 뿐이다.

(나) 사회계층은 한 사회 안에서 경제적·신분적으로 구별되는 인간 집단을 말한다. 그러기에 동일한 계층에 속하는 구성원들끼리 사회적으로 더 많이 접촉하며, 상이한 계층에 속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그러한 접촉이 훨씬 더 적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 그런데 한 사회를 구성하는 성원들 사이에 접촉이 적어지고 그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언어적으로 분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사회계층의 구별이 엄격한 사회일수록 그에 따른 언어 분화가 쉬 일어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는다. 반상(班常)의 구별이 있었던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 양반과 평민(상민, 서얼 등)의 언어가 달랐다는 여럿의 보고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라) 그렇더라도 사회계층에 따른 언어의 변이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잡히다(잡히다)’ 등에 나타나는 움라우트의 실현율이 학력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보고는 바로 그러한 시도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① (가) - (다) - (나) - (라)
- ② (가) - (라) - (나) - (다)
- ③ (나) - (다) - (가) - (라)
- ④ (나) - (라) - (가) - (다)

③

**\* 각 문단의 요약과 표지(접속부사나 지시어) 확인 \***

(가) 현대 사회의 사회계층을 나누는 기준 제시  
현대 한국 사회는 계층 경계가 확연치 않아서 언어에도 사회적 계층의 표지가 적음

(나) 사회계층을 정의  
동일한 계층일수록 접촉 빈도가 높아짐

(다) <그런데>  
접촉이 적어진 상태가 지속되면 언어의 분화가 일어남  
사회 계층의 구별이 엄격한 사회일수록 언어 분화가 쉽게 일어남

(라) <그렇더라도>  
국어 내에서 사회계층에 따른 언어 변이를 확인하려는 시도와 예시

**\* 배열 \***

(나)에서 사회 계층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접촉 빈도를 바탕으로 (다)에서 ‘사회 계층에 따른 언어 분화’로 화제를 초점화한다. 그런 뒤 (가)에서 사회계층을 나누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 사회는 경계가 확연하지 않아서 언어에서도 분화를 찾기 어렵다는 내용을 제시한 뒤, <그렇더라도> 국어 내에서 이를 확인하려는 시도와 예시가 있었다는 (라)로 마무리!

똑똑한 <다음 나라국어 카페>: <http://cafe.daum.net/naraeyoujin>

문 11. 어법에 맞는 문장은?

- ①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한다.
- ② 북극의 빙하는 수십 년 내에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어졌다.
- ③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는 인문학적 상상력이다.
- ④ 교육부는 새 교과서를 편찬함에 있어서 전인교육의 충실화에 두었다.

③ 올바른 문장이다.
[오답해설]
① ‘복종하기도 하다’의 필수 부사어 누락 →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자연에) 복종하기도 한다.
② ‘예측되- + -어지다’는 이중피동 → 예측된다.
④ ‘두었다’의 목적어 누락, ‘-에 있어서’ 번역투 → 교육부는 새 교과서를 편찬할 때 (목표를, 중점을) 전인교육의 충실화에 두었다.

문 12. 동일한 의미의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짜장면 / 자장면
- ② 간지럽히다 / 간질이다
- ③ 복숭아뼈 / 복사뼈
- ④ 손주 / 손자

④ ‘손주’는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므로 ‘손자’와 상하관계이다.
------------------------------------------------

문 13. 상대되는 의미로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 ① 失笑 - 笑殺                                              ② 訥辯 - 能辯
- ③ 稀薄 - 濃厚                                              ④ 困難 - 順坦

① 실소(失笑): ① 알지 못하는 사이 웃음이 터져 나옴 ② 참아야 할 자리에 툭 터져 나온 웃음 소살(笑殺): ① 웃어넘기고 문제 삼지 아니함 ② 큰 소리로 비웃음
[오답해설]
② 늘변(訥辯): 더듬거리는 서툰 말씨 능변(能辯): 말솜씨가 능란함, 또는 그런 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
③ 희박(稀薄): ① 농도나 밀도가 옅거나 낮음 ② 감정이나 의지가 굳세지 못하고 약함 ③ 희망이 나 가망이 적음 농후(濃厚): ① 빗갈이 진하거나 짙음 ② 경향이나 기색이 뚜렷함 ③ 몹시 앓고 진함 ④ 가능성이 다분함
④ 곤란(困難): ① 어떤 일을 하는 입장·상황·조건 등이 좋지 않아 어렵거나 까다로운 상태 ② 경제적으로 몹시 어렵고 궁핍함 순탄(順坦): ① 성질이 온순하여 까다롭지 않고 화평함 ② (길이)험하지 않고 평범함 ③ 아무 탈없이 순조로움

문 14.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덕목과 가장 가까운 것은?

子路曰, “君子尙勇乎?” 子曰, “君子義以爲上. 君子有勇而無義爲亂, 小人有勇而無義爲盜.”  
 - 『論語』, 「陽貨」 -

- ① 惻隱之心                                      ② 羞惡之心  
 ③ 辭讓之心                                      ④ 是非之心

[현대어풀이]  
 자로가 말했다.  
 “군자는 용기를 숭상합니까?”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올바름을 최고로 여긴다. 군자가 용기만 있고 올바름이 없으면 난동을 부리고, 소인이 용기만 있고 올바름이 없으면 도적질은 한다.”

② 羞惡之心(수오지심):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오답해설]

① 惻隱之心(측은지심): 남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③ 辭讓之心(사양지심): 겸손히 마다하며 받지 않거나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  
 ④ 是非之心(시비지심): 시비(옳고 그름)를 가릴 줄 아는 마음

문 15. 밑줄 친 ㉠ ~ ㉤ 중 어문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목적: 신도시 ㉠ 제2 단계 건설 사업의 교통 영향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지하 차도, 고가 차도 및 외곽 도로의 폭을 넓히고,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를 ㉡ 개설함으로써 사업 지역 주변의 교통 시설을 확충하여 도시 교통을 원활히 ㉢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 있습.

- ① ㉠                                              ② ㉡  
 ③ ㉢                                              ④ ㉣

①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제-’는 접두사이므로, ‘제2’와 같이 뒤의 말에 붙여 적고, ‘제1’과 ‘단계’는 ‘제2 단계’와 같이 띄어 적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순서이므로 ‘제2단계’라고 붙여 적는 것도 허용한다. 본래 아라비아 숫자 뒤에는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오답해설]

② → 함으로써  
 ‘-므로’는 ‘-기 때문에’란 까닭의 뜻을 나타내고, ‘-으므로(써)’는 ‘-는 것으로(써)’란 수단 또는 방법의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함으로써’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③ → 처리하는 V 데  
 이 문장에서 ‘데’는 ‘일’을 뜻한다. 조사 ‘에’를 붙여 보면 알 수 있다. ‘데’는 이 외에 ‘것, 곳, 장소, 경우’ 등의 뜻도 나타낸다. 이럴 때 ‘데’는 의존명사이고 띄어 쓴다. 붙여 쓰는 어미 ‘-나 데’는 뒤에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된 상황을 미리 말할 때 쓰인다.

④ → 있음  
 ‘있음, 없음’의 경우 [이쑈], [업쑈]으로 소리 나므로 ‘-음’을 ‘-슴’으로 쓰는 경우가 있으나 ‘-음’만 표준어로 삼는다.

문 16.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일 있을 한국시리즈는 시작 전부터 여러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결승에서 만난 두 팀의 감독이 예전에 한술밥을 먹던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A팀의 감독은 한때 B팀의 감독 밑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A팀의 감독은 시합에서 양보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형만 한 아우가 없다는 말이 맞을지, ( ) (이)라는 말이 맞을지, 내일의 경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 ① 管鮑之交      ② 犬猿之間      ③ 青出於藍      ④ 草綠同色

③ A팀의 감독은 B팀의 감독 밑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다. 빈칸의 바로 앞에 ‘형만 한 아우 없다’는 말은 B팀이 이겼을 때를 표현한 것이니, 빈칸에는 제자(弟子)가 스승보다 낫다는 뜻의 ‘청출어람(靑出於藍): 푸른 색이 쪽에서 나왔으나 쪽보다 더 푸르다’이 적절하다.

[오답해설]

① 관포지교(管鮑之交): 관중과 포숙의 사귄이란 뜻으로,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  
 ② 견원지간(犬猿之間): 개와 원숭이의 사이라는 뜻으로, 사이가 매우 나쁜 두 관계  
 ④ 초록동색(草綠同色): 풀빛과 녹색(綠色)은 같은 빛깔이란 뜻으로, 같은 처지(處地)의 사람과 어울리거나 기우는 것

문 17. 다음은 보고서의 목차이다.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세계화 시대의 한국어 발전 방안

I. 세계화의 개념 및 사업의 배경

1. 세계화의 정의 및 유관 개념

2. 세계 문자사와 한글의 창제 원리 ..... ㉠

3. 한국어 세계화 사업의 필요성 ..... ㉡

II. 한국어 세계화 사업의 실태

1. 정부 기관에 의한 세계화 사업

2. 민간 기관에 의한 세계화 사업 ..... ㉢

III. 기존 사례들의 문제점 검토

1. 예산의 부족과 전문가 확보의 미비

2. 한류 중심의 편향적 사업 계획

3. 장기적 전망이 결여된 사업 진행 ..... ㉣

IV.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개선 방안

⋮

- ① ㉠      ② ㉡      ③ ㉢      ④ ㉣

① 세계화 시대에 한국어를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서론이 ‘I. 세계화의 개념 및 사업의 배경’이다. 여기에는 ‘1. 세계화의 개념’과 함께 ‘(한국어 발전) 사업의 배경’이 나와야 한다. ‘배경’은 사업의 맥락이나 필요성이다. 따라서 ‘세계 문자사와 한글의 창제 원리’는 한국어 발전 및 세계화 방안을 위한 서론에 부적절한 내용이다.

문 18. 다음 글의 ㉠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1 :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스탠리 큐브릭은 영화음악으로 상당한 예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원래 큐브릭은 알렉스 노스에게 영화음악을 의뢰했었다. ( ㉠ ) 영화를 편집할 때 임시 사운드 트랙으로 채택했던 클래식 음악들에서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자 그는 그 음악들을 그대로 영화에 사용했다. ( ㉡ )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다뉴브’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인간이 우주를 인식하고 새로운 경지의 정신에 다다른 경이로운 장면들에 배경 음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클래식 음악이 대중적인 오락물과 결합할 때, 그 음악은 평이한 수준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흔한 일이다. ( ㉢ ) 큐브릭의 영화는 이미지와 결부된 클래식 음악의 가치가 높아진, 거의 유일한 경우이다.

- | ㉠     | ㉡   | ㉢   |
|-------|-----|-----|
| ① 그러나 | 그리고 | 그런데 |
| ② 하지만 | 그래서 | 그러나 |
| ③ 그런데 | 그리고 | 그러나 |
| ④ 그래서 | 그런데 | 하지만 |

②  
알렉스 노스에게 음악을 의뢰했다가 임시 사운드 트랙(클래식)을 그대로 사용했으므로 ㉠에는 역접의 접속 부사(그러나, 하지만)나 전환의 접속 부사(그런데)가 들어갈 수 있다. - ④ 소거 이어 ㉡ 뒤에 임시 사운드 트랙이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화되었으니 ㉢에는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순접의 접속 부사(그래서)가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그리고’는 대등 병렬의 접속 부사이고 ‘그런데’는 전환의 접속 부사이므로 ㉢에 올 수 없다. 클래식이 평이한 수준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 뒤에 큐브릭의 영화는 반례로 제시되었으므로 ㉣에는 역접의 접속 부사(그러나, 하지만)가 적절하다.

문 19.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호박냇에 싸오는 붕어꿈은 언제나 맛있었다  
부엌에는 빨강계 질들은 팔(八)모알상이 그 상 우엔 새파란 싸리를 그린 눈알만한 잔(盞)이 뵈였다  
아들아이는 범이라고 장고기를 잘 잡는 앞니가 빠드러진 나와 동갑이었다  
울과주 밖에는 장꾼들을 따라와서 엄지의 젖을 빼는 망아지도 있었다

- 백석, 「주막」 -

- ① 색채의 대비를 통하여 풍경을 강렬하게 그려 내고 있다.
- ② 지역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대상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유년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
- ④ 어린 아이와 어른의 시각을 대비하여 사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④ 과거시제를 사용하여 어린 시절에 보았던 것을 회상하고 있을 뿐, 어른의 시각을 묘사한 부분은 없다.
[오답해설]
① 빨갳게 질들은 팔(八)모알상이 그 상 우엔 새과란 싸리 - 색채의 대비
② 백석은 평안도 방언에 기반을 둔 토속어를 술하게 구사했다. 생소한 식생활 용어도 많았다. '호박늪에 싸오는 붕어곰은 언제나 맛있었다'(시 '주막')에서 '붕어곰'은 흔히 '붕어찜'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고 교수는 '붕어를 진하게 곤 것'이라고 새로 풀이했다. 북한에선 '잉어곰'이란 말도 쓴다는 것. - 올해 첫 '백석 시어 사전'이 나와서 출제된 듯 ['백석 시어 사전' - 고희진 고려대 교수] 이 외에도 '올과주'도 '올바자'의 평안 방언이며 '장고기'도 '장조림(간장에다 쇠고기를 넣고 조린 반찬)'의 북한어이지만 여기서는 '잔고기(조그마한 물고기)'로 쓰인 듯하다. '엄지'는 어미를 의미한다.
③ 유년 시절 보았던 주막의 정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문 2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말을 잊었다. 어쩌면 그들은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년 사내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성냥불을 댕기려다 말고 멍하니 난로의 불빛을 들여다보고 있다. 노인을 안고 있는 농부도, 대학생도, 쭈그려 앉은 아낙네들도, 서울 여자도, 머플러를 쓴 춘심이도 저마다의 손바닥들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망연한 시선을 난로 위에 모은 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만치 홀로 떨어져 앉아 있는 미친 여자도 지금은 석고상으로 고요히 정지해 있다. 이따금 노인의 기침 소리가 났고, 난로 속에서 툼밥이 툼툼 튀어 올랐다.</p> <p>“흐유, 산다는 게 대체 뭐야…….”</p> <p>불현듯 누군가 나직이 내뱉었다.</p> <p>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꼬리를 붙잡고 저마다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 정말이지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p> <p>중년 사내에겐 산다는 일이 그저 벽돌담 같은 것이라고 여겨진다. 햇볕도 바람도 흘러들지 않는 폐쇄된 공간. 그곳엔 시간마저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마치 이 작은 산골 간이역을 빠른 속도로 무심히 지나쳐 가 버리는 특급 열차처럼……。 사내는 그 열차를 세울 수도 탈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다릴 도리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 남겨진 자기 몫의 삶이라고 사내는 생각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임철우, 「사평역」 중에서 -</p>
---------------------------------------------------------------------------------------------------------------------------------------------------------------------------------------------------------------------------------------------------------------------------------------------------------------------------------------------------------------------------------------------------------------------------------------------------------------------------------------------------------------------------------------------------------------------------------------------------------------------------------------------------------------------------------------------------------------------------------------------------------------------------

- ① 등장인물들이 서로 갈등하는 계기의 역할을 한다.
- ②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삶을 기구하게 만드는 원인의 역할을 한다.
- ③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촉매의 역할을 한다.
- ④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삶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③ 누군가 내뱉은 말에 사람들은 그 말꼬리를 붙잡고 저마다 곰곰이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 이어지는 중년 사내의 생각을 통해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해설]
① 등장인물들의 갈등은 지문에서 알 수 없다.
② 등장인물들이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대사일 뿐 앞으로의 일에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④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인식했는지 지문에서는 알 수 없다.